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5. 10(목) / 총 5매(본문 2)
담당 부서	해외건설 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성호, 팀장 이두희, 사무관 김지우, 주무관 남혜숙 • ☎ (044) 201-4583, 4813
보 도 일 시		2018년 5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10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출범...해외수주 전방위 지원 발기인 총회 의결...초대 사장에 허경구 전 한전 해외사업본부장 선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’(이하 ‘지원공사’)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 임원 선임, 주식발행 사항, 정관 승인, 사무실 소재지 등을 의결(5. 11.)했다.

* 영문명: KIND(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)

○ 발기인 총회는 자본금을 출자한 한국토지주택공사, 건설공제조합,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*이 참여하여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.

* 한국토지주택공사, 건설공제조합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철도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

□ 총회에서 선임된 지원공사 임원은 사장, 감사, 상임이사(3명), 비상임이사(3명) 등 총 8명이고, 초대 사장은 한국전력공사 출신으로 삼성물산 프로젝트사업부 상임고문을 역임한 허경구 씨가 선임됐다.

○ 허경구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해외사업개발처 처장,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베트남 응이손2 석탄 화력사업(23억불, '13년) 등 많은 투자개발사업을 수주로 이끌었다.

○ 아울러 지원공사의 감사에는 최금식, 상임이사에는 서택원, 임한규, 김영수 등이 선임됐다.

□ 지원공사 설립 시 **납입자본금**은 7개 인프라공기업의 현물출자(GIF 수익증권) 약 1,300억 원과 건설공제조합·수출입은행의 현금출자 약 600억 원 등 **약 1,900억 원*** 규모로 조성되었다.

* 향후 투자대상 프로젝트 확대 등 자본금 증액이 필요할 경우 법정 자본금 5천억 원까지 자본금 규모 확대 가능

□ 지원공사는 **사업 발굴부터 개발·금융지원, 직접 투자**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, 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**민·관 합동 수주단(Team Korea)의 구심점 역할**을 담당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위해 **3개 본부 7개 팀**(50명 내외)으로 운영되고 각 본부는 정보 수집 및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 하는 **전략기획본부**,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는 **사업개발본부**, 리스크 분석 및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**투자관리본부**로 구성된다.

□ 그 밖에 이번 발기인 총회에서는 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**정관을 승인**하고 **사무실 소재지**(서울특별시)를 의결하였으며,

○ 향후 직원 채용과 설립 등기를 마친 후 **6월 27일 설립행사**(여의도 콘래드호텔)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.

□ 선임된 허경구 초대 사장은 “지원공사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포부를 밝혔으며,

○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지원공사가 사장의 리더십, 임직원의 전문성,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바탕으로 **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**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지우 사무관(☎ 044-201-4583 / 4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추진배경 및 경위

- ◆ 투자개발형(PPP)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은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PPP 진출에 소극적
 - ⇒ PPP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 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·강화

□ (추진 배경)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·관 협동(PPP)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이 급격히 변화

*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(WB): '05년 403억불 → '15년 1,199억불(약 3배)

- 우리 기업은 PPP 진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·역량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*

* 세계 PPP 시장에서 우리기업(14억불)이 차지하는 비중: 1.15%('15년)

- 반면 중국,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정책(국가대항전)을 바탕으로 PPP시장에 활발히 진출중

* 특히, 프랑스(Egis), 카타르(Nebras Power), 일본(JOIN) 등 일부 국가는 PPP 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 중

- ⇒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연계·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

□ (추진 경위)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원기구 설립 의결('17.1.4), 세부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('18.1월)

- (법적 근거 마련)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

* 개정안 발의(전현희의원, '17.6월) → 상임위 및 본회의의결('17.9월) → 국무회의 및 공포('17.10월) → 시행령 개정안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('18.4.25)

- (명칭 변경)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'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기구'를 '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'로 명칭 변경(영문 'KIND')

2. KIND 주요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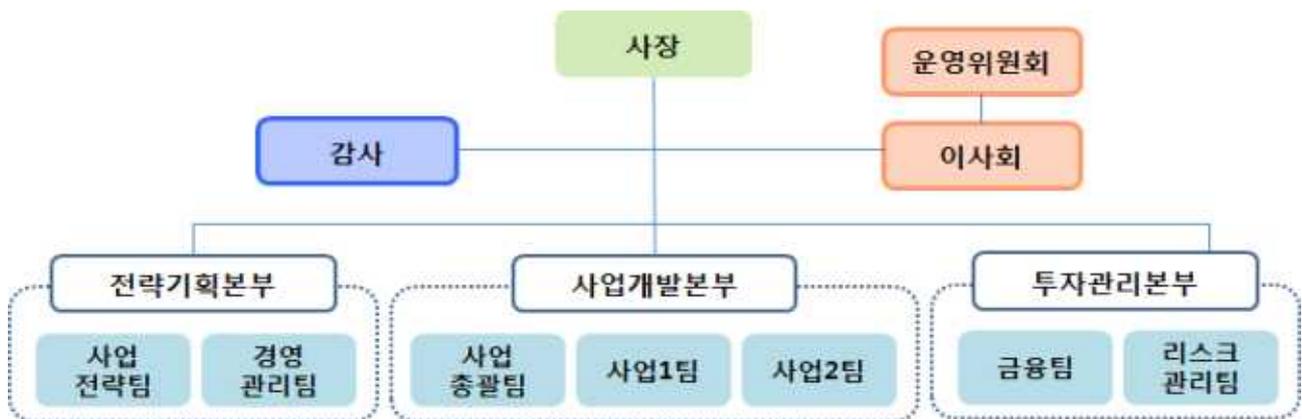
- (주요 업무)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,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·전문적으로 지원
 - (사업 발굴*)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,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·제안
 -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하여 수주에 활용
 - * G2G, 자체 발굴,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(단기~중장기)
 - (개발 지원) 금융, 법률,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·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
 -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,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,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
 - * KIND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(F/S 등)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
 - (금융지원) 대출 주선,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
 - 필요시 KIND의 공신력을 활용,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강을 위한 투자 실시
 - * KIND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·채권발행 가능



3. 지원공사 운영 방안

- (예산) 예산 신규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목적·특성별 재원조달 추진
 - (운영) 신규 출연 없이 GIF자금을 자본금으로 납입(현물출자)하고 관련 기관 출자를 통해 운영비용으로 활용
 - (개발지원)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F/S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공사가 위탁 운영하여 프로젝트 개발 지원
 - (프로젝트 투자) 채권 발행(정부가 원리금 상환 보증)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프로젝트 SPC에 지분출자(15~30%) 형식으로 투자
- (조직) 사업 단계별 전문적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

[조직 구성 예시]



전략기획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, G2G 등을 통한 사업 발굴·제안 ■ 국내외 정보수집 및 동향 파악
사업개발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프라분야(교통, 도시, 기타 인프라)별 기술(ENG) 자문 ■ 민간 제안 사업 검토 및 발굴
투자관리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세·환경·노동 등 법률 리스크 분석 및 계약체결 지원 ■ 투자 및 금융주선 등 금융지원 업무 수행

- (인력) 임원 및 일부 직원(사업 개발, 금융, 리스크관리)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공기업 직원 파견을 통해 인프라 전문성 확보(총 4~50명)